

황주군 청파대동굴유적 제7퇴적층에서 나온 유적유물들에 대한 분석

리재남, 김정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물정리를 잘하여야 유물과 자료에 대한 종합적연구를 옳게 추진시킬수 있으며 분석과 종합을 잘하여야 년대를 확정하고 그 시기의 사회경제형편과 문화발전정도를 정확히 밝혀낼수 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24페이지)

력사유적과 유물은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귀중한 유산으로서 그것을 적극 찾아내어 옳게 정리하고 종합, 분석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밝히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황주군 청파대동굴유적에서는 구석기시대의 인류화석 7점과 불자리 13개, 석기 2 038점, 짐승뼈화석 1만여점 등 수많은 유적유물들이 발견되였다.

이 유적은 황해북도 황주군 읍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청파대마을 뒤산 벼랑밑에 자리잡고있다. 이 동굴은 하부고생대 황주계 중화층의 석회암지대에 형성된것으로서 퇴적층은 황적색점토와 석회암각력으로 구성되어있고 모두 15개 지층으로 구분되였다.

이 글에서는 황주군 청파대동굴유적 제7퇴적층의 석기갓춤새와 불자리에 대한 핵분열흔적년대를 확정하여 이 지층의 시대를 밝히려고 한다.

이 퇴적층에서는 18점의 타제석기와 4개의 불자리가 발견되였다.

타제석기는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가장 널리 리용한 로동도구의 하나로서 그 갓춤새를 옳게 분석종합하는것은 해당 유적의 시기를 정확히 확정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석기의 갓춤새는 일반적으로 재료와 종류, 크기와 가공상태, 제작수법 등의 세부징표들로 이루어진다.

무엇보다먼저 청파대동굴유적 제7퇴적층에서 발견된 석기들의 재료구성을 보면 석영으로 만든 석기가 11점으로서 가장 많은데 규암석기는 6점, 석회암석기는 1점이며 석영과 규암의 비율은 전체 석기의 99.1%에 해당된다.

이 유적의 주변에는 석영과 규암이 없고 모두 석회암뿐이다. 이러한 석영이나 규암은 이 유적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남강에서만 볼수 있다.

석영과 규암이 유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조건이지만 99%이상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는것은 당시 사람들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석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과정에 석기재료들의 리용가치를 경험적으로 습득한것과 관련되어있다.

석영이나 규암은 다른 재료의 재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굳고 때려내면 조개껍질모양의 형태가 생기면서 예리한 날을 만들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이 유물을 남긴 사람들이 석영이나 규암재료가 가지고있는 우점을 석기제작 및 사용과정에 경험적으로 체험하였기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알려진 구석기시대의 중기나 후기 유적들을 보아도 이러한 실례를 적지 않게 볼수 있다.

구석기시대의 중기 및 후기 유적으로 잘 알려진 중리동굴유적의 제1문화층과 제2문화층에서 발견된 석기들도 모두 석영으로 만든것들이다.

구석기시대후기 유적인 룡곡제1호동굴유적에서 발견된 59점의 석기들가운데서 석영이 41점으로서 69.5%이고 규암은 16점으로서 27.1%를 차지하며 역시 대흥동굴유적에서 발견된 4점의 석기도 모두 석영으로 만든것들이었다.

다음으로 청파대동굴유적 제7퇴적층에서 발견된 석기들의 종류를 보면 18점의 석기중에서 1점은 주먹도끼, 4점은 찌개, 2점은 사냥돌(석구), 7점은 굽개, 4점은 찌르개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서 주먹도끼, 찌개, 사냥돌은 구석기시대전기부터 리용된 석기들이고 굽개와 찌르개는 중기에 출현한 석기들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후기에 널리 리용된 밀개나 새기개, 자르개 등 세석기부류의 석기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석기들의 종류구성을 놓고 볼 때 이 석기들은 중기에 해당되는 갓춤새를 가진다고 볼수 있다.

한편 이 석기들의 크기를 보면 주먹도끼는 $12.4 \times 11.3\text{cm}$ 이고 찌개는 길이가 각각 15cm, 12cm이며 사냥돌은 직경이 각각 8.2cm, 6.2cm이다. 굽개는 대체로 길이가 4~9cm이며 찌르개는 평균 5.5~7.1cm이다. 이 석기들중에는 길이, 너비가 2~3cm되는 세석기들이 한개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역시 이 석기갓춤새가 후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청파대동굴유적 제7퇴적층에서 발견된 석기들의 가공상태를 보면 대부분이 2~3면 가공한것들로서 떨어져나간 패각상단구들이 비교적 크고 불규칙적인 반면에 작은 물결모양이나 띠모양의 패각상단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석기들은 해당 용도에 맞는 형태를 일정하게 갖추고있지만 좀 거칠어보인다.

일반적으로 타제석기는 구석기시대 이른시기의것일수록 가공면이 적고 점차 중기, 후기로 내려오면서 많은것이 특징이다. 구석기시대후기에는 자연면을 거의 볼수 없는 다면가공석기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 층에서 알려진 석기들에는 2~3면 가공한것들의 비중이 40%정도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다면가공한 석기는 한점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층의 석기갓춤새를 가공상태의 견지에서볼 때 구석기시대중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다음으로 제작수법을 통해서도 이 석기갓춤새의 특징을 잘 엿볼수 있다.

제작수법도 구석기시대전기부터 후기로 오면서 점차 발전해왔다. 전기에는 내리쳐깨기와 때려깨기 등의 가장 단순한 수법들이 적용되어오다가 중기에는 이 수법들과 함께 때려떼기수법이 더 보충되었으며 후기에는 보다 발전된 대고때려떼기와 눌러뜯기수법들이 적용되었다. 결과 석기들은 용도에 맞게 정확한 형태를 가지면서도 가공면이 거친것으로부터 고르로운것으로 발전하였고 날부분도 보다 더 예리해지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오는 과정에 점차 창조적능력이 높아졌기때문이다.

내리쳐깨기와 때려깨기로 가공된 석기들의 면을 보면 한번 타격하여 생긴 패각상단구들이 크고 거친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중기부터 적용된 때려떼기수법에 의하여 생긴 패각상단구들은 좀 작고 전기에 비하여 덜 거칠다. 한편 후기에 들어서면서 적용된 보다 발전

된 수법들인 대고때리기와 눌러뜯기로 가공된 면들은 패각단구가 매우 작으면서 고르롭다.

이 층에서 나온 석기들의 패각상단구들은 대부분이 크고 일부 조금 작은것들이 드물게 보일뿐이며 단구면도 그리 고르롭지 못하다. 그리고 대고때려떼기나 눌러뜯기에 의하여 생기는 작은 물결모양이나 띠모양의 고르로운 단구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역시 이 퇴적층의 석기갯층새가 전기나 후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의 세부징표들에 따르는 분석결과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청파대동굴유적 제7퇴적층에서 나온 석기들의 갯층새가 구석기시대중기에 해당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청파대동굴유적 제7퇴적층에서 발견된 불자리의 핵분열흔적년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불자리에서 채취한 흙에서 지르콘광을 선별하여 FT법으로 년대를 결정하였다. FT법은 지르콘광속에 있는 우라늄의 자발핵분열흔적을 계수하여 년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청파대동굴유적 제7퇴적층에서 결정된 핵분열흔적년대는 7만 4천년이전에 해당된다.

이 년대값은 청파대동굴유적 제7퇴적층에서 나온 석기들의 분석자료와도 잘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 지층은 구석기시대 늦은 시기의 문화층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이처럼 청파대동굴유적과 거기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우리 나라에서 인류진화발전의 합법칙적과정과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고고학적자료들이다.

청파대동굴유적이 발굴되고 여기에서 나온 유물들에 대한 연구가 심화됨으로써 우리 나라 력사의 유구성과 찬란한 문화전통이 다시한번 확증되게 되었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의 력사가 구석기시대로부터 시작된 원시사회의 력사도 포함하는 장구하고도 유구한 력사라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확증되게 되었다.